

# Your AI pair programmer

전기컴퓨터공학부 정보컴퓨터공학전공 201824633 김유진

해당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들을 찾아보던 중, 현재 MS에서 베타테스트를 진행 중인 “Copilot”이라는 프로그래밍 도구를 접하게 되었다. 해당 기술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의 언어로 번역해준다. 자동완성 기능을 뛰어넘어 코드 자체를 완성 시켜주는 기술력에 흥미를 느껴 이 기술을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다.

우선 처음 이 기술을 접하게 되었던 글<sup>1)</sup>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원하는 기능을 적으면 자동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즉,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의 언어로 파파고, 구글 번역기 마냥 번역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코드를 작성해줄 때 단 하나의 방법이 아닌 여러 가지 방법의 코드를 제공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MS의 자회사인 github의 방대한 양의 코드 데이터 덕이다. github가 전 세계 소프트웨어 개발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인 것을 모르는 개발자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의 데이터를 이용해 제법 좋은 성능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해당 글을 보고 기술의 원리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었으나, 예시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했다. 직접 사용해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Copilot 사이트<sup>2)</sup>에 접속해보니 현재 단계에서는 초대장을 받아야만 사용해볼 수 있고, 이마저도 대기 명단이 있어 당장은 체험이 어려워 보였다. 이에 따라 실제로 사용해본 사람들의 review를 찾아보던 중 youtube의 영상<sup>3)</sup>을 접하게 되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function getWeather’과 같이 함수를 선언하면 이름을 분석해 날씨 api를 바로 불러오는 코드를 작성해주고, 원하는 기능들을 주석으로 작성한 뒤 함수를 선언하면 자동으로 코드를 이어서 작성해주는 기능 등이 탑재되었다. 코드를 작성할 때 ‘구글링’을 통해 내가 원하는 코드나 방법을 찾기까지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시간을 대폭 줄여준다.

이 기술이 개발자들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유사한 작업을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이 기술은 블록 코딩으로 치면 ‘블록’을 제공해줄 뿐 전체적인 순서, 알고리즘은 개발자가 직접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도구’일 뿐 완전히 대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개발자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도 일정부분 동의한다. 프로그래머가 아닌 ‘코더’의 경우에 한해서다. 이에 따라 개발자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코드를 작성할 줄 아는 하급 개발자가 아닌 창의력, 논리 사고력 등을 이용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개발자로서 성장해야만 할 것이다.

1) [https://blog.naver.com/with\\_msip/222447072640](https://blog.naver.com/with_msip/222447072640)

2) <https://github.com/features/copilot/signup>

3) [https://www.youtube.com/watch?v=x\\_Yw2f161CU](https://www.youtube.com/watch?v=x_Yw2f161CU)